제 16 호 학생들의 지적 발달 단계 (페리의 인지 발달 이론)

원래 대학 이상의 교육은 고등 교육이라 하여 영어로는 하이어 에듀케이션(higher education)이라 합니다. 여기서 “고등“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단지 더 많은 지식을 쌓아 올린다는 점이 아니라 “초등, 중등“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 교육을 받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페리라는 교육학자는 이것을 좀 더 이론적으로 밝혀 보았습니다. 대학 신입생부터 졸업반 학생까지 어떤 지적 도전이나 이슈에 대해 사고력과 판단하는 과정을 연구해 보니까 4단계별로 발달 유형이 나타나더랍니다.

1. 이원론 (dualism)

가장 낮은 인식 단계는 “이원론“으로써, 사물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며,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믿고, 또 권위자는 정답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강의실에서 권위자는 교수님이니까 “이원론“ 차원에 있는 학생은 교수님이 정답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권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2. 다중성 (multiplicity)

그러나 학생이 여러 지적 도전을 받게 되거나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이원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페리는 이것을 인지 발달 단계의 두번째 단계인 “다중성“ 단계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학생은 한 가지 관점과 풀이 방법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하며 이러 저러 견해를 객관적으로 살펴 보려고 합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을 줄인다는 뜻도 되는데, 이 단계에서 학생은 아직도 “정답“은 존재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라 믿고 여러가지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려고 합니다. “다중성“ 단계는 흑백 논리인 “이원론“ 단계보다 생각의 폭은 넓어지지만 자칫하면 세상만사 다 그게 그거라는 혼동의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3. 상대론 (relativism)

그러나 모든 견해가 다 똑같이 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학생은 한 단계 높은 인지 발달을 하게 됩니다. 페리는 이것을 인지 단계의 세번째인 “상대론“ 단계라 하는데, 이 단계에서 학생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다중성“ 단계처럼 단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환경, 배경, 조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물에 대해 초연해지며 객관적일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내려진 결론을 의심하고, “만일 이러저러 하다면….?“ (What if…?)하는 의문을 갖고 “상대적 “인 관점으로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4. “선택에 대한 책임“ (commitment)

마지막으로 네번째 인식 단계는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계입니다. 매사를 객관적으로만 보거나, 상대적으로 “만일 이러저러 하다면…?“ 하는 의문만 갖는다면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숙한 인식 단계에 도달하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되, 여러 상황을 상대적으로 고려한 다음 자신의 평가에 따라 판단한 뒤에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결심을 하는 행동적이고 책임있는 지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흑백 논리 (이원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모두가 책임있는 지성인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페리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할 때까지 이원론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 단계는 사람에 따라서는 늙을 때까지도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원론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고단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강의를 하거나 문재를 주면 학생들은 쉽게 좌절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미 다중성 단계로 성숙한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흑백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든지 획일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면 학생들은 따분해 한다고 합니다. 좋은 강의는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준다고 합니다.

© Peck Cho, 1999